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코프스는 사랑의 믿음의 마음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TEL. 02-950-5401

# KÓKKOÇ

6

2021 JUN VOL. 231  
[www.bible.ac.kr](http://www.bible.ac.kr)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보고서 제출 후 보직자들이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기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유정선 일립본부장, 최은희 평가감사실장, 백민석 한걸음총학회 회장, 강우정 총장, 강규성 부총장 / 뒷줄 왼쪽부터 조윤경 전공교육부장, 김종완 행정본부장, 최육렬 입학처장, 김은호 대학원장, 권경만 기획실장) [ 관련기사 3 페이지 ]

## 「2021 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진단(평가) 일정 6월 14일로 확정

이제는 기도할 때! 성서인 공동체에 긴급기도 SOS



▲ 비대면으로 진행될 평가실의 내부 배치도

우리대학의 「2021 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일정이 6월 14일로 확정 되었다. 평가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90분간이다. 온라인 비대면 진단을 위한 우리 대학 내의 접속장소는 일립관 B101, 새로 구축한 실험실습실로 최신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가장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가능한 장소이다.

진단 절차는 진단편람이 제시하고 있는 13개의 진단지표를 3개의 지표군으로 나누어 각 지표군 마다 30분씩 3명의 담당 진단위원이 지표별 내용관련 질의응답을 하게 된다. 같은 요령으로 제 2와 제 3 지표군의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각 대학에 허용된 참여자는 모두 9명인데 이들은 90분 동안 자리를 같이 하게 되며 어떤 질의에도 응답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비대면 진단에 우리대학을 대표하여 나갈 참여위원은 강규성 부총장, 조윤경, 최은희(총괄위원장), 임지영, 장인순, 이성아, 고미숙 교수와 권경만 기획실장, 권순범 평가감사실 팀장 등 9명이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다른 위원들과 함께 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본인이 맡은 분야를 직접 집필한 베테랑들이다.

이제는 기도할 때이다. 5월 27일 보고서는 제출되었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교목실은 교내·외를 망라하는 성서인 공동체의 긴급기도회를 기획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마감(5월 27일)까지의 긴 기간 동안 마라톤 기도회를 이끌어온 교목실이 이번에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기도의 동역자를 얻기 위해 online 기도회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은 시간 동안 성서인 공동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매달려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도록 해 달라고 간구하여야 할 것이다.

### 미니설교

#### 감동 주는 사람 (눅 7: 1-10)

김승호(성서학과 교수)



성공하는 사람이나 기업의 공통점은 감동(感動)을 준다는 데 있다. ‘감동’은 “느껴 움직이게 하다”는 뜻으로 감동하면 ‘움직이며 행동을 하게 된다.’ 본문의 로마 백부장은 세 가지 면에서 감동을 줬다.

첫째, 유대인의 장로들을 감동시켰다. 백부장은 평소 유대민족을 사랑하여 예배 처소를 건축해 줬다.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 감동한 유대장로들은 예수님께 종의 병을 고쳐주기를 청했고 예수님은 종의 병을 낮게 하셨다. 둘째, 예수님을 감동시켰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는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종과 예수님과의 공간적

인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믿음을 보며 “내가 너 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감동하시며 종의 병을 낮게 하셨다. 셋째,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종이 중한 병에 걸렸고 주인은 종에게 해줄 것이 없었다. 백부장은 주님께서 종을 고쳐주시도록 중보자가 되기로 작정, 장로를 주님께 보내 구원해주시길 것을 간청했다. 병든 종은 주인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살아났다.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도록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 전략’ 발표

대학구조조정 칼바람, 수도권 대학 겨냥

“우리는  
그보다 더 험한 역경도  
견디어 낸 학교!  
이번 풍랑도  
학우, 교수, 직원, 동문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이기며 나아가자!”

##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보고서 제출

“공동체의 정금과 같은 노력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교육부가 5월 20일 또 하나의 허들(hurdle)을 기진맥진한 대학들 앞에 던졌다.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보고서 마감을 앞두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대학들에 2023 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감축하라는 내용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교육부가 발표하였다. 사실상 대학구조조정 의 칼바람으로 인식되는 이번 발표의 타겟은 수도권 대학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총원율은 91.4%로, 4만여 명의 미충원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도 대입에서 지방대학의 신입생(일반대) 총원율이 92.2%로 수도권 99.2%에 훨씬 못미치면서 미달 사태로 이어졌다. 지방대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발표된 이번 '전략'은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둘째, 부실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을 추진할 것이고. 셋째, 대학 간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원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권역별 학생총원 현황과 각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기준 유지총원율을 설정하고, 일정 기간 각 대학의 유지총원율을 점검한 후 권역내 대학수의 30%~50%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을 권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기준 유지총원율 미충족 대학에 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 권고, 또는 일반 재정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면 대학이 제출하는 자율혁신계획에 '적정규모화 계획'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계획은 정원조정계획을 포함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우정 총장은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해서 지방대가 살아나리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고통 받는 쪽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 같은 수도권 소규모 대학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70여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보다 더 험한 역경도 견디어 낸 학교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풍랑도 학우, 교수, 직원, 동문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기며 나아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진단(평가) 보고서가 27일 오후 1시 복음관 회의실에서 'enter' 버튼 클릭과 함께 제출되었다. 제출 현장에는 강우정 총장과, 강규성 부총장을 비롯한 3부장과 최은희 평가감사실장, 한걸음총학 백민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20년 9월 1일 최은희 평가총괄위원장과 함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9개월간의 피를 말리는 대장정은 시작됐다. 목표는 한 가지, 「일반재정지원대학선정」. 각종 평가 설명회와 평가 내부보고서 작성, 영역별 점검회의, 증빙자료 점검회의, 자체평가보고서 검독 및 크로스 체킹 등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집필위원과 실무위원들은 각종 문서와 데이터, 수천 건의 증빙자료의 숫자며 토씨 한 자까지를 면밀하게 훑고 반복하기를 수백 번. 여기에 우리공동체가 자랑하는 최강 화력인 '기도'가 합세하였다. 10일간의 특별기도회(2월 15일~27일), D-day 36(4월 22일) 일을 앞두고는 전체기도회와 팀별기도회가 선지동산을 통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성서캠퍼스를 떠난 진단 보고서 평가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우리 공동체의 정금과 같은 노력이 담겼다. 이 보고서가 평가하는 위원들의 중심을 움직여 줄 것을 믿는다. 9개월의 대장정에 최상의 헌신과 기도로 참여해 준 모든 성서공동체 구성원께 감사한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

## 장주영 학우 설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마 16:13~19) 등  
4학년 학우들의 설교와 간증, 주관 예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시 127:1)



▲ 장주영 학우가 주관예배 말씀을 전하고 있다.

2021 학년도 1 학기 4 학년 주관예배가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주의 부르심으로 입학한 학우들이 4년의 수련과정을 통해 신앙과 인격의 성숙한 내면을 보여줬다. 성서학과 9명의 학우가 말씀을, 사복 4명과 영보 5명의 학우가 간증하였다.

장주영 학우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마 16:13~19)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학우는 집이나 건물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초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삶을 강조했다. 말씀에 나온 반석은 곧 주님을 믿는 공동체의 견고하고 신실한 신앙고백을 뜻한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기초요 시작이다.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신앙고백이 담긴 반석과 같은 교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길 힘과 천국 열쇠를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 반석의 축복을 부여하신 주님만 바라보자. 환란과 핍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이어가자고 말하였다.

임수정 학우(영보)는 자신이 성서대에 입학해 공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었다. 재학 중 가장 큰 축복은 4년간 말씀을 채워준 채플이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말씀이 더해져 견뎠고 다시 회복돼 현재에 이르렀다. 지난 4년간 차곡차곡 쌓여진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에 나가 주의 헌신된 자녀로 성장해 갈 것이다. 학교가 작성중인 대학기본역량보고서를 통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도록 함께 기도하겠다. 지난 4년간 '성서의 가족'이 된 것은 큰 행복이며 기쁨이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간증하였다.

4 학년 주관예배 간증 및 설교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간증자/설교자).

- \* 1 주
  - 17 일(월) ▲ 박사민(사복) ▲ 천강후다윗
  - 18 일(화) ▲ 김성윤(사복) ▲ 백민석
  - 20 일(목) ▲ 김예찬(사복) ▲ 조명호
  - 21 일(금) ▲ 이형진(사복) ▲ 김은혜
- \* 2 주
  - 24 일(월) ▲ 전예원(영보) ▲ 김영우
  - 25 일(화) ▲ 김예진(영보) ▲ 장주영
  - 26 일(수) ▲ 고예안(영보) ▲ 송은재
  - 27 일(목) ▲ 임수정(영보) ▲ 김현준
  - 28 일(금) ▲ 문채림(영보) ▲ 원석호

## 다원학회 주관, 성서학과 전체예배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전체예배 강행



▲ 다원학회원들이 전체예배의 찬양을 힘차게 인도하고 있다.

다원학회(회장 김택일)가 주관하는 성서학과 전체예배가 6월 2일 오후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학우들이 말씀 앞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소명자로서 비전과 헌신을 다짐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교목실 김창현 전도사가 '하나님의 메시지'(요나 3:1~10)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음을 외친다. 강력한 경고에 지우고하를 떠나 백성들은 순종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었고 그들의 온전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모두는 소명에 따라 이곳에 임했다. 주님의 메시지는 곧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시대의 어려움을 넘어서야 한다. 악함을 드러 성령을 간구해가는 신실한 학우들이 되자고 말씀하였다.

강우정 총장은 코로나 19 라는 상황에서 보통의 경우는 코로나를 핑계 삼아 전체예배를 생략했을 법한데도 그러나 학우들이 용기를 내어 online 과 offline 으로 전체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성서대학다운'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앞으로도 성서학과가 이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성서대학의 모든 학과들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잘 감당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앞서 김택일 학회장이 코로나로 상황이 어렵지만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학우들이 되자며 기도하였다. 참석한 한 학우는 찬양단의 역동적인 모습과 말씀에 위로를 받았다. 현 상황이 빨리 수습돼 2 학기 예배는 좌석이 가득 채워지길 희망하였다.

전체 예배에 40여명의 학우가 참여했으며 현장 상황은 6월 9일 학과 내 LMS 진로 세미나에 탑재 된다.

## “복음에 관한 사명과 확신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 강우정 총장의 감사  
개교 69주년 감사예배



▲ 김은호 대학원장이 개교예배 말씀을 전하고 있다.

우리대학의 개교 69주년 감사예배가 지난 13일 오전 11시 로고스홀에서 외부인 초청 없이 내부 행사로 진행되었다.

강우정 총장은 개교 69주년 축하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음전도자 양성을 위해 우리대학을 사용하여 주셨다며 세 가지에 대해 감사하였다.

첫째, 오늘 이 순간까지 설립의 뜻이 훼손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어 감사하다. 세상은 많이 변했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복음에 관한 사명과 확신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말씀이 우리 삶의 최종 권위이다. 성서대학 이름은 우리의 자긍심이며 가장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둘째, 하나님의 의식으로 가득한 충성된 일꾼을 보내 준 것에 감사하다. 제3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수십 명의 교수와 교직원 들은 최고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충성하고 있다. 무모할 정도로 수고한다. 겸손과 순종으로 서로를 섬기며 최고의 고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다.

셋째, 우리가 지나온 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경험에 감사하다. 과거의 어려운 경험에서 현재의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다. 하나님은 환난에서 인내를 그리고 연단을 넘어 소망인 한반도 복음화의 비전도 이루게 해 준다. 이를 위해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이 궁극적으로는 학교를 높이고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올해 우리대학은 대학기본역량준비와 새로운 교육과정의 수립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다. 충성을 다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3달란트 이상으로 크게 화답해 줄 것임을 믿는다며 인사하였다.

이에 앞서서 김은호 대학원장은 ‘천국운동과 밭의 비유’ (마 13:23)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학교 설립자 강태국 박사의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고 복음전도자를 키우기 위한 도구로 대학을 설립하였다. 우리 모두는 주의 부르심으로 여기에 왔다. 각자의 마음 밭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이 복음의 씨앗을 잘 태동시켜 밀알 되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실천하고 전해야 한다. 설립자의 평생은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과 헌신을 다한 제자의 길을 걸었다. 그 결실로 오늘 우리도 여기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을 위해 나의 의는 내리고 신실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해가는 성서공동체가 되자고 말씀하였다.

이에 앞서 김용수 법인회장이 지난 69년간 우리대학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서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앞날에 주의 축복과 역량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었다.

기념예배 후 20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감사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20년 장기근속자는 이한영 (기초교육원), 김성경 (사북), 김정원 (영보) 교수와 권경만 기획실장, 최육렬 입학처장, 유미나 교학팀장, 이강동 편집주간이다. 이들에게는 강우정 총장이 감사패와 부상으로 황금열쇠를 증정하였다.

제 37대 한걸음총학생회 (회장 백민석)가 지난 13일 개교 69주년을 기념하는 온라인 이벤트 축제 ‘선물 .png (present & gift)’을 진행하였다. 2년째 지속된 코로나 여파로 지쳐있는 학우들에게 활력 증진과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한 축제이벤트 성격이 담겨 있다.

장소는 로고스홀이었고 행사 진행은 양승민 (성서 2) 남궁민 (사북 2) 학우와 장다숨 (영보 3), 김무엘 (사북 2) 학우가 2개 파트로 나눠 이끌었다. 오후 1시 오프닝과 함께 n 행사대회, 믹스 음악 듣기와 퀴즈 및 동아리 홍보,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학우들은 유튜브 채널로 중계된 프로그램에 실시간 접속, 교감하며 상황을 만끽하였다. 진행자의 재기발랄한 입담과 적절한 유머 등이 프로그램에 잘 녹아들어 보는 즐거움과 충전의 시간이 됐다. 행사는 5시간 이어졌으며 접속자는 900여명에 달했다.

## 핫 온라인 축제 ‘선물 .png (present & gift)’

5시간 동안 900여명 접속,  
즐거움과 활력증진



▲ 유튜브 채널에 중계되고 있는 현장 사진.

## 제 10 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간호학과 52 명  
“예수님 같은 완전한 간호사 되기를”



▲ 간호학과 학우들의 나이팅게일 선서식 장면.

## 농구장 등 체육시설 개 · 보수

노원구청 지원, 시민대학 시설로도 제공



▲ 풋살장 바닥면 전체가 새롭게 교체되었다.

간호학과 제 10 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17 일 오후 3 시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 19로 가족 등 외부인은 초청하지 않았고 재학생과 교직원도 참석해 학우들의 선서를 축하해 주었다.

강우정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대학은 모든 학우들이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간호사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스도는 모든 육체적 병든 자와 마음의 병든 사랑으로 치유하였고 영원한 삶을 위해 십자가 대속의 삶까지 보여줬다. 여러분은 임상실습현장에서 아픈 자의 육체적 병 고침에 역량을 다해야 한다. 그와 함께 영적인 병까지 치유하고 안내하는 주님의 간호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임상현장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달라고 축사하였다.

김조자 교수는 축사에서 크림전쟁에 간호사로 참여해 광명의 천사로 불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간호사가 되었다. 간호사는 하나님이 내려준 커다란 특권이다. 소명의식을 갖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임해야 한다. 자신의 소명을 스스로 질문하면서 삶을 개척하고 도전에 임할 때 꿈과 비전도 이뤄질 것이라며 선서자 모두를 격려해 주었다.

유정선 일립교육부장은 귀한 선서식을 갖도록 지켜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 학우들의 임상실습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준비된 복음전도자의 소명에 따라 평생을 주의 말씀에 따르고 전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달라며 기도해 주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학과 3 학년 학우들이 간호사로서 요구되는 기초간호학 수업을 마치고 임상 현장에 나가기 전 실시한다. 선서식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정체성과 윤리의식을 확인하고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캠퍼스 내에 농구장과 풋살장, 모리아관의 남녀 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한창이다. 이 공사는 지난 2 월 9 일 노원구청(오승록 구청장)과 체결한 노원평생시민대학 관 · 학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공사의 일환이다.

농구장과 풋살장 개선은 이번 노원평생시민대학사업의 하나인 장애청소년 대상의 성인초기 장애인 신체 지원 프로그램인 ‘몸 튼튼 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풋살장 바닥면을 전면 교체하였으며 바로 옆 농구장의 바닥면도 보수 및 평탄작업 후 도포과정을 거쳐 산뜻한 코트로 재단장 했다. 2 곳의 개보수작업에 사업비 3 천 5 백여만 원이 투입되었다.

모리아관 2 층에 새롭게 설치되는 남녀화장실은 체육 활동 후 이용이 가능하도록 샤워 시설 등에 특히 역점을 두고 있다. 장소는 2 층 중앙 계단 좌우 공간(33㎡, 10 평) 2 곳에 각각 확장 설치된다. 여자화장실은 양변기 5 면, 수전시설 4 곳과 총학 간담회에서 제기해 온 파우더 룸까지 자리한다.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4 곳, 양변기 2 면, 수전 3 곳과 샤워시설 탈의실이 배치되어 있다. 두 곳 모두 내부에는 장애인 화장실도 포함된다.

또한 301 호와 303 호를 통합, 중규모 강의실로 확장하고 있다. 통합 강의실 규모는 65 석이며 ‘장애부모 동료 상담사 과정’ 등 노원평생시민대학의 강의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공사기간에 맞춰 2,3 층 석면제거작업도 함께 병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선되는 모든 시설은 학우들의 이용이 최우선 순위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다만 주말이나 오후 혹은 방학 등 학우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노원평생시민대학의 이용에 제공될 것이다. 이때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이웃들에 학우들의 애정 어린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사는 3 주간 진행돼 6 월 중순경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 억 3 천여만 원에 달한다.

##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준 성서공동체에 감사”

31년의 긴 여로, 김태규 교수 정년퇴임

### 김태규 교수 정년 퇴임 예비

일시 | 2021년 6월 2일(수) 오후 12시 | 장소 | 한국성서대학교 로고스홀



▲ 김태규 교수가 강우정 총장으로부터 정년퇴직 감사패를 수여받고 있다.

## 인터뷰 정년퇴임 김태규 교수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해 온 31년  
성서인의 잠재력을 보았다”

김태규(기초교육원) 교수의 정년 퇴임예배가 6월 2일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오윤선(기초교육원) 교수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딤후 4:6~8)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사도 바울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평생을 달려왔다. 그가 쏟은 열정의 뜻대는 주님을 향한 복음전파 한 가지였다. 김태규 교수는 지난 30년간 학교를 위해 자신의 몫을 잘 감당했다며 주님 은혜와 형통을 기원하였다.

김 교수는 퇴임사에서 30여년 전 설립자와 만남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고 회고하였다. 학교에서 보직자로 헌신하도록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준 성서공동체에 감사하다. 영원한 삶을 향해 남은 생애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강우정 총장은 김 교수가 지난 30년간 철학분야에 천착해 거둔 연구업적과 인문학 분야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도 획기적이었다. 그의 헌신으로 각종평가영역과 행정체제도 세워졌다. 은퇴 이후도 주님 동행과 영원한 성서인으로 남아달라며 인사하였다.

김태규 교수는 서양 고대 중세철학을 전공하였다. 교내 도서관장, 교학처장, 기획실장을 비롯해 대학원장과 평가감사실장을 역임하였고 외부의 한국 중세철학회 회장,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저서 「고대철학의 시간이론」, 「학술적 글쓰기와 수사학」 외에 번역서 출간과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지난 1989년 우리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시작하며 31년간 학우들을 섬겨온 김태규 교수가 은퇴한다. 바쁜 그를 붙잡고 떠나는 소화를 물어 보았다.

### 지금 이 순간 남기고 싶은 말은?

이곳에서 학우들을 가르치며 긴 시간 함께 호흡해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89년 첫 강의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화살처럼 흘러갔다. 되돌아보니 학문이나 인격 등 여러 면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 과정에서 의견대립과 오해로 자칫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도 있었을 거다. 모든 것이 부덕의 소치였다.

### 설립자 강태국 박사와의 첫 만남은?

아무런 수사나 기교 없이 솔직하게 말한 점이 당시엔 너무도 강렬했었다.

###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을 때. 내외부에서 각종 평가위원직을 수행하며 우리 대학이 평가를 통과할 때마다 경충경중 뛰며 좋아하던 일. 이번 제3기 대학기본역량진단보고서 작성에 공동체의 단합된 저력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성서인의 잠재력을 보았다.

###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21C 인재상은 비판적 사유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 및 매니지먼트 능력 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 대학은 우리만의 본질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타 대학과 차별화를 이루고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 밀알훈련센터 내 잣나무 숲 가지제거 완료

이용객 안전 고려 및 숲 전체 시야 확보



▲ 가지치기를 산뜻하게 마친 잣나무의 능글픈 모습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여파로 숲속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포천밀알훈련센터내 잣나무 숲 일대가 새롭게 정비되었다. 시설팀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이곳 4천여 평에 식재된 잣나무 약 4백여 그루의 가지제거 작업을 마쳤다. 작업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5미터 높이까지 죽은 가지 등을 자르고 잡목 등도 제거하였다.

잣나무 숲의 일부 고사된 가지는 바람에 날려 떨어지면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숲 전체의 시야와 산책까지 방해한다. 또한 나무 자체 생육에도 지장이 많다.

이곳 일대에서 자라는 잣나무는 지난 1970년 초반부터 심어졌으며 수령은 약 30~50년에 달한다. 나무는 직경 40센티 이상의 거목이 약 백여 그루에 달할 만큼 장관을 이루고 있어서 센터 내 상징과 같은 곳이다.

이번 정비 작업에는 잣나무 가지치기 외에 다비드 하우스와 게스트 하우스 두 곳의 실내도 깔끔한 색상으로 재단장하였다. 준공 16년째의 게스트 하우스는 일부 시설과 인테리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내부면 전체를 산뜻한 색상으로 새롭게 꾸몄고 조명 교체 및 일부 시설물까지 정비를 마쳤다.

밀알훈련센터 게스트 하우스 사용 문의 / 사무팀 950-5508  
(재학생 및 동문 20% 할인 적용)  
\* 다비드 하우스 : 방 2 거실, 화장실 2  
\* 게스트 하우스 1, 2 : 각각 방 1 거실, 화장실

## 2021년 1학기 성경졸업고사 61.6% 합격

2021 학년도 1학기 성경졸업고사가 29일 진행되었다. 177명이 신청하였고 159명이 응시(89.8%) 했으며 이들 중 98명(61.6%)이 합격했다. 지난 해 1학기 합격률 56.8%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하였다.

학년별 합격 현황은 4학년이 71.7%로 가장 높았고 2학년이 58.8%로 뒤를 이었다. 입학 후 처음 도전한 1학년이 56%를 보였고 3학년 54.9%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성서대학교 『발전후원금』 (2021.5.1~2021.5.31)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56,140,400)

강진 (교직원 가족)	40,000,000	반종원 (법인 이사장)	1,260,000	최미정 (부설기관)	300,000
KBF (Korean Bible Funds)	11,180,400	전안나 (부설기관)	1,000,000		
장인순 (본교 교수)	2,000,000	김현광 (본교 교수)	400,000		

약정 후원자 (합계 30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3,600,000)

동문 및 가족		교직원 및 가족	
10구좌	김정호	10구좌	조혜경
2구좌	이재국 조혜진	3구좌	김창현
1구좌	조윤희 조은별	1구좌	임주희

일시납 누계 (3.1~5.31) 74,140,400원

약정자 누계 (3.1~5.31) 118구좌 14,160,000

# 아비뇰의 여자들 Les Femmes d'Alger (O. J.)

파블로 피카소 (Pablo Ruiz Picasso 1881-1973)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tiggempoo&logNo=221196319577>



흰색 벽 하나를 다 차지하던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생각난 건 어린 시절의 술집입니다. 청계천 따라 길게 늘어난 판잣집 사이로 엄마가 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던 술집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술집엔 빨간 립스틱을 짙게 바른 예쁜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목욕탕 앞에서 놀다가 누나들이 삼삼오오 목욕탕에 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린 눈에 나한테 하나도 없는 누나들이 왜 거기에만 많은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술집 동네에 연탄가스로 죽은 누나들이 야기가 청계천 아이들 사이에 괴담처럼 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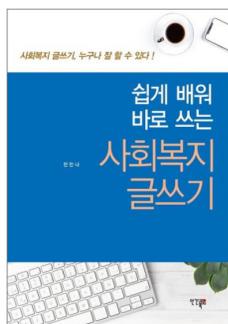
피카소가 1907년 그린 이 작품의 본래 이름은 아비뇰의 여인 창녀였습니다. 아비뇰은 바

##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14호

로셀로나 뒷골목에 있는 창녀촌이 있던 곳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카소 역시 자신의 첫 경험은 창녀촌이었고 그는 예술적 영감을 여자들에게서 추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가 여러 번의 스케치를 통해서 완성 합니다. 스케치에는 두 명의 의대생이 있었고 그 중의 한명은 해골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는데 남자들은 사라지고 5명의 벌거벗은 여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6살의 피카소는 그동안 그려온 정밀한 표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밴 전통을 벗어 던지고 원시적인 단순함을 추구했는데 그 표현 방식은 아프리카의 미술에서 가져옵니다.

이 그림은 서양 미술의 오랜 전통인 원근법의 사망과 원시시대의 등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근법의 사망은 세 명의 여자의 나신에서, 원시시대 등장은 두 여자의 얼굴에서 보여 집니다. 이 그림에서 피카소는 앞으로의 미술이 더 이상 주제가 아니라 형태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화가가 새 것이라 선언해도 그것이 새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이 다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해 아래 새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근법의 발견과 사라짐, 원시 미술의 등장 그리고 사라짐이 반복과 재생을 거듭하는 게 그림입니다. 아직도 아비뇰의 그림은 어린 시절 제가 본 동네와 겹쳐서 보입니다.

### 전안나 동문 『쉽게 배워 바로 쓰는 사회복지 글쓰기』 출간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전안나(00 학번) 부장이 사회복지사 행정 업무에 도움이 될 실용서 『쉽게 배워 바로 쓰는 사회복지 글쓰기』를 출간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전 동문은 초급 사회복지사와 예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집필하였다.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각종 문서 작성,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등 50여 종의 양식과 예시를 실었다. 사회복지 글쓰기 이해, 업무용 글쓰기, 글쓰기 체력을 키우는 방법, 사회복지 글쓰기 윤리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글쓰기 등이 풍부한 예시와 함께 제시된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 중인 저자의 저술 경험과 방법 등이 현장 경험과 함께 전체 내용 안에 잘 녹아 있다. 전 동문은 『1천권 독서법』, 『기적을 만드는 엄마의 책 공부』 등을 출간했으며 작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전안나 / 인간과 복지 / 304p / 15,000 원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 김태규 교수

김태규 교수가 정년퇴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약간 놀랐다. 아마도 내 생각 속에 그는 성서대학에 불박이 같이 언제나 그곳에 있는 존재로 생각했었던 것 같다. 그것도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고 곧 정년퇴임 감사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왜 이렇게 서두르나 라고까지 생각하였다.

그의 모습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그 때도 노교수였고 지금도 노교수의 티가 역연하다. 그래서 그랬을까 그는 재임 중 대부분의 기간 보직을 맡아 왔고 아닐 때도 학교의 대소사를 나는 항상 그와 상의하곤 하였다. 특히 중요한 발표문이나 대외적인 원고는 그의 조언을 구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항용 쓰는 각진 어투의 썸 표현을 부드럽게 고쳐 주곤 하였다.

복음전도자 양성이 우리대학의 설립목적이라는 나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학교의 장단기발전계획 등에 그 표현을 쓰는 것을 극히 꺼려하여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다. 그는 우리대학이 일반대학인데 마치 특정 종교를 전파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인식 될 수 있으며 발전계획도 '복음전도자 양성'으로는 일반대학의 논리 체계를 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많이 따라와 주었다. 요즈음 그 문제로 내가 시비를 걸려고 하면 "그래도 제가 총장님 쪽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라며 예의 그 선한 미소로 활짝 웃는다.

그는 참 매력 있는 학자이다. 퇴임사에서 아주 짝막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문제, '영원' 그리고 '시간'에 관해 이야기 하였는데 무척 근사하게 보였다. '시간'이라는 돈 안 되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 대학이라는 사회에 이런 철학적 문제를 천착하는 학자가 한 사람쯤 있는 것은 사치일까?

나는 잘 모르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육도 많이 먹는 것 같았는데 나는 그가 남을 육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그는 부지런하고 연구(research) 능력이 남 다르게 뛰어나다. 언젠가 연구재단에서 개인연구비로 3억 원을 수주하여 와서 기쁨을 토했을 때 대단하다 싶었다. 이공계도 아니고 철학분야에서 말이다.

하나님이 항상 교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선한 미소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컬럼  
정지용 직원(주차관리실)

## 따뜻한 향기

나는 향수를 좋아한다. 향수 브랜드도 잘 모르고, 수집 취미도 없지만 그냥 향수 자체를 즐겨 뿌린다. 몸에 뿌린 서너방울 향기가 공기 흐름을 타고 후각으로 진입해오기까지 몇초간의 기다림에 마음은 들썩인다. 고유의 향기가 전하는 상큼함에 내 몸은 깨어나면서 새날의 충만함에 젖곤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출생 배경과 모습은 물론 개성까지 다양하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에서 억양, 습관, 가치관 등으로 상대방을 부분 평가한다. 그렇다고 부수적인 걸로 전체를 평가하면 자칫 오판을 일으킨다.

내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다. 나는 어떤 향기의 사람일까? 어눌한 말투와 부자유한 몸짓의 내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순 없을 것이다. 인정한다. 그렇지만 최소한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부단히 애쓴다. 그 과정에서 노력이 좌절될 때가 많아 탈이지만 말이다.

실수를 즐겨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드물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실수를 두려워하고 심한 경우, 좌절과 낙심에까지 이른다. 나는 그러한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실족한 이들에게 "힘 내! 용기 가져!" 라는 말뿐인 위로로는 조금 곤란하다. 널 힘도 없는데 '힘 내'라는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다. 먼저 그의 속이야기에 가슴을 열고서 말없이 다 들어준다면... 곁에서 인자한 눈웃음으로 응원하고 그가 다시 회복되도록 진심을 다해 기도한다면.... 몸과 마음이 허기져 있을 그를 불러내 밥 한 끼 나누면서 다독여 주는 진정한 위로자이고 싶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다. 우리 주변의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 좋겠다. 카페서 원두 볶을 때 번지는 커피의 진한 풍미처럼 서로를 보듬고 토닥여주는 따뜻한 향기의 존재로 서길 희망해 본다.

"너에게는 향기가 있어 너의 그 향기로 인하여 네가 가는 자리마다 향기롭게 할 거야" - 강지선, '너는 아름다워' 찬양 가사 중.



교수 컬럼  
최사랑 교수(성서학)

## 아무리 생각해봐도

며칠 전,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랑아~ 공모주 그거 해~ 그건 손해도 안본대~” 공모주? 그게 뭐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응.. 알았어 이모. 한 번 알아볼게.” 하며 핸드폰을 내려 놓았었다. 공모주가 뭔지는 몰라도, 이모의 말에서 묻어나는 조카를 향한 애뜻하면서도 절실한 조언이랄까. 왠지 모르게 그런 이모의 마음이 사뭇 느껴져 공모주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다. 사실 얼마 전 이모가 딸을 결혼시키면서, 이래저래 힘들었던 것 같다. 아무리 스물웨딩이 대세라지만,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라고만 말하는 딸을 보며 마음을 접어야 했던 부모의 심정이 썩 좋지만은 않았나 보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났더라. 돈 많이 벌라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돈 계산에 어두웠다. 숫자 1000 빼기 500은? 이라고 수학 문제를 내면, 500이요! 라고 대답했지만, 가게에서 500원짜리 사탕을 사고 1,000원을 내면 얼마를 거슬러 와야 하는지 잘 몰라서, 한참을 머리를 굴적이며 서 있고는 했다. 그래서 심부름 가기 전 엄마에게 “그럼 내가 어떤 동전을 다시 받아와야 하는 거예요?” 라고 확인하고 심부름을 갔었다.

요즈음 주식이 대세다. 금융을 공부하고 투자할 자산을 운용하는데 열을 올리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참 똑똑한 것 같다. 어떻게 그런 샤프함과 명민함을 갖출 수 있을까. 나는 숫자도 어렵지만, 숫자가 돈이 되면 더 많이 어렵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가끔은 첨단 문명을 누리며 스마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 살면서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아는 것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에게겐 역시 돈보다 주님이 최고이다.



외래교수 컬럼  
장대연 교수(현대사회문제)

##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서인의 자세

현대사회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인 풍요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풍족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사회문제와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사회문제가 많은 나라에 속한다. 산업화 이후 200여 년 동안 비교적 안정된 사회를 구성한 서구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성장만 바라보며 숨 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압축적인 산업화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뤄냈지만 동시에 많은 사회문제들이 개선되거나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대표적인 현대사회문제로 저 출산·고령화, 아동학대, 정신건강, 과학기술 윤리 등이 꼽힌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무엇보다 밀알정신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한 알의 희생된 밀알이 보여주는 따뜻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심성이 경직돼 있지 않음을 증명해 준다. 봉사와 나눔의 삶을 지향할 때 사회공동체는 더욱 밝고 건강해 진다. 이를 확장하면 사회문제 해결 열쇠가 우리 ‘성서인’에게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성서대학의 각 학과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예화 되어 있다. 각자의 전공과 자리에서 성서인의 자부심을 갖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준비를 하자. 마지막으로 각자의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가족 해체가 가속화 되고 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집단이므로 사회문제 접근 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중요한 거점이다. 따라서 사회문제에 맞서기 이전, 가까운 내 가족부터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 글을 읽는 지금, 핸드폰을 들고 먼저 가족의 안부부터 묻자. 간단하지만 사회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 된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밀알정신과 사랑의 실천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서인이 되길 소망해 본다.

#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 어미의 무덤

목회자이기에 받은 은혜 중의 하나는 세상을 떠나가는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장례에 임종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임종 순간에 가족들이 목회자를 불러 예배하는 걸 말하는데 그때 죽음을 앞둔 부모에게 남은 가족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듣는 두어 마디는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고마워’였습니다.

그래도 제 어미아버지의 임종을 보는 건 자식에게는 복일 겁니다. 전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천 공항 입국장에서 동생으로부터 ‘형... 엄마 막 돌아가셨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어미의 죽음을 보지 못한 자식은 그 후 임종예배 자리 때마다 제 어미에게 못다 할 말을 남의 자식의 입을 통해 하곤 했습니다.

성남 공원에 있는 어미의 집은 너무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들의 나이는 그 계단에서 증명되어 갑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언젠가는 이 계단을 오르기 힘든 날이 올 겁니다. 매 주일 성서의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나로서도 어미의 집, 그 긴 계단은 쉽지 않습니다. 하긴 그보다 더 높은 집들도 많기에 이 정도의 높이를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곳에 자리 잡은 탓에 위에서 내려 보이는 주변 풍광은 보기 좋습니다. 흐르는 땀을 닦고 숨을 내 쉰 후 어미의 집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에게 어미의 무덤은 남은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마법의 성이 됩니다. 기억 창고에서 어미와 지냈던 새끼 강아지의 기억처럼 옛 추억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솔뚜껑을 행주로 닦으면서 웃시던 어미의 얼굴은 참 이뻐했습니다. 참빛으로 빗어 내려 쪽을 지은 어미의 머리위로 나무판대기 사이로 비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솔뚜껑이 열리고 김이 오르면 턱을 괴고 구멍사이에 얼굴을 내민 아들은 그 밥 냄새에 행복해 했습니다. 아들은 어미를 몰랐습니다. 어미는 아들을 잘 알았어도 남의 남편이 되고 손자의 아버지가 된 아들은 자기 어미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어미의 집에 갈 때마다 임종 때 들었던 말을 하게 됩니다.

“엄마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나 많이 미안해요”

##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83

### 물방울의 말 \_ 정현중

나무에서 물방울이  
내 얼굴에 떨어졌다  
나무가 말을 거는 것이다  
나는 미소로 대답하며 지나간다

말을 거는 것들을 수없이  
지나쳤지만  
물방울-말은 처음이다

내 미소-물방울도 처음이다



DSLR 사진동호회-사진 속 세상이야기 | 물방울 - Daum 카페

우리의 생각과 정서를 전달하는 것에는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적 메시지를 수반하여 감정을 드러내는 목소리, 어조, 발음, 억양, 성량, 속도 등의 준언어(semiverbal)와 표정, 시선, 몸짓, 체형, 의상, 장신구 등의 비언어(nonverbal) 모두 우리의 의식적 무의식적 마음을 전달한다.

여기, 나무에서 떨어진 물방울의 신호와 이를 알아챈 화답의 미소가 있다. “물방울-말과 내 미소-물방울”은 어떻게 소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맑은 견본이다. 매순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오는 수많은 언어와 비언어의 파장에서 그 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화답할지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한다. 낫 놓고 있다가는 물방울-말도 내 미소-물방울도 소멸하고 만다.

반짝 하늘이 맑았다. 맑은 햇살이 툭 떨어진다. “맑은 햇살-말과 내 미소-맑은 햇살”, 눈부신 대화가 시작되는 6월 첫 자락이다.

대학어린이집 **놀이키트 선물**



▲ 유아들이 아이가 자기 집으로 배달된 놀이키트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 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돼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부모님께 즐거움을 전할 놀이키트를 전달하였다. 놀이키트 안에는 스케치북, 색연필, 사인펜 등 그리기 재료와 모래놀이용 샌드아트 재료가 담겼다. 장기결석 중인 유아들에게는 택배로 발송하였고 긴급보육 중에 있는 유아들은 귀가 시 가져가도록 도와주었다.

예상치 않은 선물에 아이들은 새로운 놀이감이 생겨 기쁘다며 적극 환호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학부모들도 외부활동이 어려운데 창의성 높여줄 놀이키트 선물이 아이들에게 좋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겼다. 대학어린이집에서는 앞으로도 창의력을 높여줄 다양한 놀이키트를 제공하며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 향상에 기여해 갈 계획이다. [ 감사반 박해정 교사 ]

월계종합사회복지관 **건강관리실 이전**



▲ 지역주민이 확장된 건강관리실에서 바이오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2층 건강관리실을 1층으로 이전하였다. 건강관리실 개편은 월계종합사회복지관 김병철 운영위원의 1,500만원, 신한은행 월계지점 200만원의 후원으로 탄력을 얻었다. 후원금은 안마의자, 온열 돛을 비치해 편안한 공간으로 탈바꿈되었고 헬스맥스사와 협약으로 비대면 건강측정기구 - 바이오그램까지 갖출 수 있었다. 기기는 키와 몸무게, 체성분, 혈압, 스트레스 검사를 비대면으로 측정할 수 있다. 결과는 앱과 키오스크로 확인할 수 있고 결과서를 진료기관에 제시하면 관리에 도움을 받는다. 건강관리실 이전으로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과 편의 향상에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사례관리팀 김정은 대리 ]

꿈빛어린이집 **영축산 숲 체험**



▲ 영축산 숲 체험장에서 생태미술교육을 배우는 아이들

지난 11월 6, 7세 유아 46명과 학부모가 영축산 숲 체험장에서 '열린 어린이집의 날' 행사를 가졌다. 평소 꿈빛어린이집은 매 주마다 숲속 공간에서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인적 교육을 진행하여 왔다. 당일 행사에는 한 학부모가 자연물을 활용한 생태미술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생태미술이란, 나뭇가지와 잎 그리고 각종 식물과 돌맹이 등으로 사물을 형상화해가는 작업이며 미적 감각과 창의력 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크다.

영유아들은 제작 과정에서 많은 질문을 구하며 자연물을 소재로 배우는 창의적 표현놀이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학부모들도 숲속 교육의 참여도와 효과 등을 통해 자연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산교육의 현장이라는 걸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백합반 장윤정 교사 ]

성서대학교교회 **영광과 감사의 5월**



▲ 학우들이 교회에서 보내준 치킨과 피자 선물에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성서대학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일 어린이주일, 9일 어버이주일, 16일 교사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렸다. 5월 13일은 한국성서대학교 개교(1952년) 69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기숙사에서 거주중인 학생 98명에게 치킨과 피자를 전하며 개교 기쁨을 배가시켜 주었다.

23일에는 2021 성서대학교회 임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거가 진행되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등록교인의 현장 투표 여부가 관건이 됐는데 호응해 준 성도들 덕분에 투표과정이 1, 2, 3부 예비 후 잘 이뤄졌다. 성도들은 후보자 25명의 직분임을 찬성, 규정에 따라 모두 선출되었다. 직분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 오종철 목사 ]

상계백병원어린이집 **어린이날 행사**



▲ 아이들이 우주 테마 놀이를 즐기고 있다.

지난 3일 ~4일에 걸쳐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첫 날은 온수근린공원에서 2세 맑은 반과 푸른반이 잔디밭 주변에서 보물찾기를 가졌다. 아이들 모두 즐겁게 임했고 못 찾은 친구에게 “내가 도와줄게”라며 돕는 모습을 보여 미소 짓게 하였다. 고무풍선을 손으로 튕겨 높이 오르고 다양한 신체놀이도 적극 참여했다.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꽃과 나무를 관찰하였고 장수풍뎠이와 애벌레, 매미, 개미 등을 찾으며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다.

이튿날 공동자유보육시설에서 ‘우주’ 테마에 참여했다. 우주복 입고 우주 여행하기, 화성으로 떠나보기 등의 놀이가 신나게 펼쳐졌다.

아이들이 스스로 배려와 협력, 존중의 의미를 알아가면서 더 행복하고 즐거운 어린이로 성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푸른반 윤서희 교사]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지원프로그램 - 육아프리데이**



▲ 자신의 힐링과 심을 위해 직접 만든 카네이션 트레이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7일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지원프로그램 (육아 프리데이) 을 실시하였는데 총 40명이 참여하였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을 주제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가족의 구체적인 목표 정하기의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였다. 참석자마다 다양한 목표가 스스럼없이 발표되면서 분위기도 달아올랐다. 부부의 행복은 곧 자녀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모든 참석자가 동의하였다. 이와 함께 자신을 위한 카네이션 트레이 만들기도 가졌다. 사랑의 전달자인 부모의 삶을 사는 자신을 격려하고 재충전 하는 충전의 자리였다. 이를 통해 가족 내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심을 갖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특수교사 김선화]

상계5동어린이집 **어린이날 행사**



▲ 유아가 직접 만든 바람개비를 하늘정원에서 돌리고 있다.

지난 3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각 반 별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만 3세 (셋별반) 은 선생님이 그려주는 페이스 페인팅을 받고, 마카롱 만들기를 가졌다. 아이들이 마카롱 필링을 채우고 마카롱 위에 나의 얼굴을 그리며 나만의 마카롱까지 만들었다. 이후 하늘정원에 올라가서 직접 만든 바람개비를 날리고 비눗방울로 자신만의 놀이세계를 꿈꾸며 공기를 불었다. 만 4세 (늘푸른반) 아이들은 신문을 이용해 게임과 신체활동을 가졌는데 신문의 변신에 재미를 나타내면서 호응도도 높았다. 이밖에 만 0세 (해맑은반) 은 풍선놀이, 만 1세 (예쁜꽃잎반) 밀가루촉감놀이, 만 2세 (초록풀잎반) 색깔놀이, 만 5세 (온누리반) 의 뒤집기게임놀이를 어린이날을 즐기는 등 모두가 행사진행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예쁜꽃잎반 유정현 교사]

늘사랑어린이집 **어린이날 축하해! 부모님 사랑합니다!**



▲ 어린이날을 맞아 마련된 우주탐험가 놀이장 모습.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3일 '꿈이 쑥쑥! 창의력 팡팡! 즐거운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어린이날 성격에 맞춰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해 분위기가 올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아이들은 신명 난 모습으로 적극성을 띠며 주인공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나는야 우주탐험가!', '송송 신나는 에어바운스', '톡톡 비눗방울'에서는 웃음이 가득했고 페이스페인팅으로 색다른 즐거움도 맛보았다.

행사를 통해 친구들과 즐거운 경험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됐다. 이어서 다가올 어버이날에 맞춰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 선물하기 자리를 마련, 부모님들도 행복한 모습으로 자녀가 전해 준 선물을 받았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규칙에 맞춰 행복한 추억을 만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행복한반 천은주 교사]

www.bible.ac.kr

#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21년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수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강우정.강진(총장) 5243만원(운영)	한국장학재단 200만원(장학)
김옥순 10,000달러(운영)	김창원(이사) 120만원(운영)
성서대학교교회(최정권 목사) 978만원(운영)	강혜정(설립자 가족) 1,000달러(운영)
송희경(외래 교수) 500만원(컴퓨터소프트웨어)	강일아 1,000달러(운영)
도영훈(교직원 가족) 240만원(장학)	전안나(월계중합사회복지관) 110만원(운영)
장인순(간호학 교수) 210만원(간호, 운영)	반종원(이사장) 106만원(운영)
메플전산초학술교육재단 200만원(장학)	이레장학 100만원(장학)

## 약정자 명단

<b>동문 및 가족</b> 1구좌 구진경 금동욱 김민서 김민음 김태용 류요한 마효정 박영근 박지영 안현정 용아름 원 흠 유미정 이용원 이환기 임삼일 정다운 정인철 조은별 한경순 허영숙 홍정심 2구좌 고윤정 소경숙 심미나 정옥순	조혜진 최효정 한민수 3구좌 고은영 5구좌 김기국 김연진 <b>재학생 및 가족</b> 1구좌 양주향 조윤희 2구좌 서성식 <b>교직원 및 가족</b> 1구좌 임주희	2구좌 김진순 3구좌 김창현 5구좌 정정순 10구좌 조혜경 <b>부설기관</b> 3구좌 변송이 20구좌 김신덕 <b>수원교회</b>	1구좌 김일섭 <b>일반</b> 1구좌 김미라 오현숙 이현수 진윤승 최은실 2구좌 김윤숙 최지연 <b>단체 및 기관</b> 5구좌 생령생교회(성주)
---	--	--	--

## 기부자 명단

<b>동문 및 가족</b> 5천원 김시내 정다운 1만원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슬 강은혜 강재현 강정민 강주옥 강준자 고성호 광미하 구분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실 권순용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금동욱 금필규 기상혁 김가영 김가희 김경수 김다솔 김다예 김도훈 김두환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김민서 김민아 김민을 김병렬 김보희 김선근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준우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유미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용환 김일준 김재현 김재현 김정례 김정은 김정희 김준우 김지선 김 진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송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희 노명민 노한나 노 만 류수진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경옥 박문홍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연서	박영근 박윤복 박은경 박재신 박재운 박종주 박주옥 박창대 박창민 박항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희 배창경 배호순 백명희 백연주 백해송 백항목 변지윤 서규원 서미희 서유미 서 용 서은숙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송명배 손영하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송민규 송성은 송순덕 송영자 송원복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지은 신태양 신헌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연현숙 오세천 오은희 오찬미 오찬양 오재엽 오홍복 용아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보아 유수담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혜자 이광식 이권호 이근중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민우 이민희 이병주 이병현 이상용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정모 이정숙 이정희 이정훈 이주희 이지성 이진경	이진리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혜성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선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장순호 장운국 장익심 장희남 전영수 전명자 전미영 전소영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금숙 정다연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민을 조소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 조유민 조은경 조은화 조차현 조태환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예슬 최은석 최인호 최정은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성광 한혜우 허영숙 허정은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해진 홍정심 황선명 황승호 설에스더 신에스더	김연정 김연주 김영래 김영주 김영태 김예진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현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김태보 류충열 마혜진 박재송 백연옥 성용재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송인식 신정섭 신정화 신화영 안선례 오상석 오정순 왕용분 유순희 유익숙 윤광길 윤서희 이규영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이영애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이종민 이종희 이한나 이현우 임수경 임은희 장익봉 장재경 장재원 전영희 준택복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성진 조혜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효정 탁명화 하지혜 한민수 홍혜주 황인숙 황보혜영 3만원 강수진 공복순 공지은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동교 김석환 김세련 김중숙 김지아 나예원 남지원 문순일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박해빈 반세호 방애자 배예진 서명주 실보경 성인선 신연정 양연선 양혜영 이길순 이남희 이다은 이성은 이만나 이영섭 이윤성
--	---	--	--

